

사경 (邪鏡)

로그라인

과거 스토킹을 겪은 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취업 준비생 서현. 집 안에서 반복되는 소음과 기이한 현상에 시달리던 그는 금이 간 거울 속에서 자신과 다른 움직임을 발견하고, 거울을 가릴수록 점점 낯설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다.

장르

공포 / 심리 스릴러

예상 러닝타임

약 10~15분

<캐릭터 - 이서현 (25,여) / 김우진 (25,남)// 거울 속 서현 (25,여)>

OP. 서현의 집 앞 / 새벽

급하게 서현의 집으로 뛰어가는 우진.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현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만 반복된다.

우진은 통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건다.

우진 (다급하게) 받아, 이서현. 제발 받아..!

작게 욕을 읊조리며 계속 달린다.

우진, 서현의 집 앞에 도착한다.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다.

우진, 숨을 고르며 문틈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뺀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대답이 없다.

우진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CUT TO BLACK.

타이틀.

사경 (邪鏡)

S#1. 서현의 집 / INT / 오후

(F.I)

서현과 우진, 함께 집을 정리하고 있다.

우진 잘 쉬고 있던 사람 불러서 일이나 시키고.

서현 누님이 부르면 와야지~

우진 누님은 얼어죽을.... 됐고, 밥이나 사.

서현 이미 시켜놨지!

우진 오, 센스 좋은데?

우진, 바닥에 놓인 상자를 정리하다가 벽에 기대어 있는 큰 거울을 발견한다.

우진 야, 이거 뭐야? 새로 샀어?

서현 전 주인이 놓고 갔대. 안 그래도 거울 하나 필요 했는데, 딱 좋지 않냐?

우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다.

우진 야, 너 자꾸 집에 중고 물품 좀 들이지 마.

서현 (우진을 바라보며) 왜?

우진 너 예전에- 에휴, 됐다. 기억도 못 하는 놈한테 뭘 말을 해.

서현 (의아해하며) 응? 왜, 뭔데?

우진 짐 정리나 마저 해.

서현, 싱거워하며 상자에서 소품들을 꺼낸다. 그중 약통 몇 개가 책상 위에 놓인다.

우진, 짐을 정리하며 약통을 힐끗 바라본다.

우진 (무심하게) 요즘은 어때, 잘 자냐?

서현 (손이 느려지며) 아, 뭐.... 이사도 했으니 이제 잘 자겠지.

우진,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인다.

잠시 정적.

서현, 짐을 풀다가 서있는 채로 거울을 바라본다.

거울 속 서현도 똑같이 서 있다.

우진 뭐하냐?

서현 어? 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잖아.

우진 네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바보냐?

서현, “시끄러” 라고 말하며, 우진에게 짜장면 배달을 받아오라고 시킨다.

우진, 현관으로 나간다.

혼자 남은 서현은 다시 거울을 바라본다.

아무 이상 없다.

서현 별게 다 신경 쓰이네.

이내 서현, 고개를 돌린다.

거울 속 서현은 아주 잠깐, 서현이 돌아선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S#2. 서현의 집 / INT / 오후

우진, 돌아갈 준비를 한다.

우진 역시 짜장면 말고 고기를 얻어 먹었어야 했어....

서현 어, 끝났어~ 가라.

우진 잘 살아라, 취준생. 또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으면 바로 전화하고.

서현 ...에이, 집도 옮겼는데 설마 그러겠냐. 그래도 고맙다, 짜샤.

우진, 서현의 집을 나선다.

혼자 남은 서현, 짐을 마저 정리한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린다.

INS> 휴대폰 화면 - ‘1차 서류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2차 대면 면접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환해진다.

서현 헐, 미친! 합격..!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뻐하던 서현은 실수로 거울을 친다.

거울이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서현, 놀라 뒷걸음질 쳤다가 이내 거울을 살펴본다.

다행히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으나, 한쪽에 금이 길게 갔다.

서현 아씨, 거울 깨지면 재수없다던데...

서현, 거울을 들어 올려 벽에 다시 세워둔다.

우선은 주변에 있던 신문지로 깨진 유리 파편을 치운다.

언뜻 보이는 거울에 비친 무언가.

서현, 현관 쪽에 무언가 서 있는 듯한 인기척에 뒤를 돌아본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다시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자,

그곳에는 자기 모습만 비쳐 있다.

서현은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 피식 웃는다.

서현 피곤한가보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는 서현.

CU> 오후 9시

서현, 이사짐을 벽쪽으로 대충 밀어둔다.

S#3. 서현의 집 / INT / 저녁

책상에 앉아 면접 예상 질문을 읽는 서현.

방 안은 조용하다.

쿵.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서현, 힐끔 천장을 올려다보고 다시 질문지로 시선을 돌린다.

쿵. 쿵.

서현, 한숨을 쉬고 포스트잇을 꺼내 글씨를 적는다.

‘아랫집인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잠시 후 빈 방.

벽에 기대어 있는 거울.

거울 속 서현은 방 안에 그대로 서 있다.

실제 방에는 아무도 없다.

거울 속 서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본다.

S#4. 서현의 집 / INT& EXT / 저녁

잠시 후 서현, 방으로 돌아온다.

서현 아, 2차 면접.... 대면 자신없는데 연습해야하나....

서현,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는다.

목을 가다듬고 활짝 웃으며

서현 안녕하세요, 면접 번호 205번 이서현 입니-

쿵. 쿵. 쿵.

다시 천장에서 들려온 소음이 서현의 말을 자른다.

서현, 면접 연습을 멈추더니 짜증난다는 듯 길게 한숨을 쉰다.

현관으로 나가 뒷집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문 앞에 붙여놓았던 포스트잇은 사라져 있다.

서현, 일타며 문을 바라본다.

서현 방금 붙여놓고 갔는데? 날아간건가...?

다시 노크를 해도 안쪽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

서현, 하는 수 없이 제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도어락을 누르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현, 곧바로 고개를 돌린다.

역시나 아무도 없다.

서현, 제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안심한다.

S#5. 서현의 집 / INT / 밤

숨을 내쉬고는 다시 면접 준비를 하는 서현.

쿵. 쿵.

천장에서 소음이 들린다.

서현, 휴대폰을 세워 방 안을 촬영한다.

서현 하- 내일 바로 관리실에 얘기해야지...

시간이 흐르고, 침대에서 면접 준비를 마저하던 서현은 어느새 잠들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채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간다.

거울에 이마를 댄 서현, 무어라 중얼거린다.

서현 답답해, 나갈래-

서현, 다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자 거울 앞 방바닥에서 눈을 뜬다.

주변을 둘러보며 일어난다.

서현 요즘엔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내 서현, 일어나서 책상 위의 몽유병 약을 먹으며

촬영 영상을 확인하는데 표정이 사색이 된다.

충간 소음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영상 속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울 속 서현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영상을 보는데, 거울 속 서현이 카메라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딱 맞추며 웃는다.

서현, 거울을 힐끔보더니 다급히 근처의 담요로 거울을 덮는다.

S#6. 서현의 집 / INT / 새벽

가려진 거울 앞에 서 있는 서현.

집 안은 조용하다.

서현,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소름이 돋으면서도, 괜히 거울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천을 살짝 걷는 순간, 쿵! 하는 소음이 위에서 들려온다.

서현, 놀라서 천을 놓자 이어지던 소음이 멈춘다.

서현, 황급히 천으로 거울을 다시 잘 가린다.

이내 서현,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더니

집안 곳곳의 창문이나 TV 등, 반사되는 사물마저 신문지로 가려버린다.

S#7. 서현의 집 / INT / 새벽

그러나 무색하게도 쿵, 쿵, 쿵, 소리가 점점 커진다.

동시에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도 들린다.

얼어붙은 서현, 혼란에 빠진다.

서현 (머리를 감싸며) 뭐야, 뭐냐고 진짜...!

서현,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집어서 우진에게 전화하지만 안 받는다.

우진에게 카톡을 보내며

CU> 카톡 내용 - 야야야, 살려줘, 누가 도어락 누르고 집에 들어오려 해ㅠㅠㅠㅠ

서현 하씨, 왜 안 받아 김우진...!

천장에서 연신 들리는 쿵쿵 소리와 도어락 키패드 작동음이 커진다.

서현, 머리를 감싸진 채 가려진 거울 앞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쉰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춘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거울 속 서현 (O.S.) 야.

서현, 흠칫 놀라며 두리번 거리더니 홀린 듯 거울에 시선을 뺏긴다.

이내 떨리는 손으로 거울의 천을 건자, 거울 속 서현은 현실의 서현과 달리 차분하게 웃고 있다.

서현 너... 뭐야?

거울 속 서현, 느릿하게 현실의 서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거울 속 서현 난 너야. 너보다 조금 더 스스로에게 솔직한 나지.

서현, 혼란과 패닉에 입을 다문다.

거울 속 서현 매번 등신같이 참기만 하고, 왜 그러고 살아?

서현의 표정이 굳는다.

거울 속 서현 싫어도 호구마냥 웃기만 하고, 쫓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순간적으로 서현의 머릿속에 스토키에게 받은 편지와 선물들이 떠오른다.

거울 속 서현 나였으면 그 날도 가만히 안 있었어.

서현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S#8. 서현의 집 / INT / 새벽

거울 속 서현은 여유롭게 웃고 있다.

서현 그냥, 제발 좀 꺼져..!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거울 속 서현 그게 정말 나 때문일까? 네가 이사 온 이유도 개가 무서워서가 아니잖아.

서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거울 속 서현 스스로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게 싫었던 거지.

서현, 고개를 저으며 부정한다.

거울 속 서현 제대로 말도 못 하고, 화도 못 내고. 답답해서 내가 대신 해주려는 거야.

거울 속 서현, 손을 들어 거울 표면에 댄다.

그러자 서현의 손도 똑같이 움직인다.

거울 속 서현과 손바닥이 맞닿는다.

서현 뭐, 뭐야 이거 왜 이래..!

거울 속 서현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넌 좀 쉬어.

서현, 손을 거두려 애쓰지만 거울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거울 속 서현이 씨익 웃는다.

순간적으로 서현의 눈 앞이 핑 돌더니 점멸한다.

서현과 거울 속 서현의 시점이 뒤바뀐다.

이젠 서현이 거울 속에 갇힌 채, 거울 속 서현을 따라하게 됐다.

거울 속 서현, 서현의 몸을 차지한 채 씨익 웃는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우진 (O.S.) 서현아?

우진, 집 안으로 들어온다.

서현, 우진을 등지고 서있다.

우진 야, 너 괜찮아? 뭔 일인데? 전화는 왜 또 안 받고...!

이내 서현, 느릿하게 뒤 돌아서 우진을 바라본다.

서현 우진아.

우진 ...어, 왜.

서현은 우진을 바라보며 안도한 듯 웃는다.

서현 나 무서웠어.

우진 왜, 무슨 일인데. 누가 들어오진 않았고? 다친데는?

우진, 서현에게로 다가가는데 순간 시선이 서현 뒤편의 거울로 향한다.

거울 속 서현, 서현이 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진과 얼굴을 마주보며

겁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외치며 거울 표면을 두드리고 있다.

우진, 천천히 고개를 내려서 서현을 내려다본다.

현실의 서현은 여전히 웃고 있다.

우진 (혼란스러워하며) …서현아?

거울 속 서현이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인다.

거울 속 서현 (입모양만으로) 도망가…!

우진은 굳은 얼굴로 현실의 서현을 내려다본다.

우진 너… 누구야?

서현의 미소가 멈춘다.

잠시 정적.

서현 무슨 소리야?

우진, 서현에게서 한 걸음 물러난다.
그러곤 거울 속 진짜 서현에게 다가간다.

우진 야, 내 말 들려?

거울 속 서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우진이 거울에 손을 뻗는 순간.

서현이 우진의 손목을 세게 붙잡는다.

서현 그쪽 가지 마.

우진, 인상을 쓰면서 서현을 돌아본다.

우진 놔. 너 서현이한테 뭘 짓을-

서현 내가 김서현이잖아.

서현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우진, 서현의 손을 떼어내려하지만 완력이 밀려서 불가능하다.

우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서현, 차가운 표정으로 우진을 빤히 노려본다.

서현 ...끈질기네.

서현, 우진을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쳐낸다.

우진, 맥을 못 추리고 순식간에 프레임 밖으로 넘어간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우진의 신음소리.

거울 속 서현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 표면을 두드린다.

우진의 손이 프레임 안에 담긴다.
손가락이 움찔거리다 이내 멈춘다.

방 안에 적막이 내려앉는다.

거울 속 서현, 충격에 미약하게 떨리는 손 외에는 움직임이 없다.

서현, 천천히 우진이 쓰러진 쪽을 바라본다.

서현 아, 귀찮게 진짜. 그러게 왜 자꾸 방해하려 들어?

서현, 거울을 바라본다.

거울 속 서현, 사색이 된 얼굴로 주저앉아있다.

서현, 비릿하게 입꼬리를 올린다.

서현 이제 좀 조용하다, 그치? 우린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

이내 서현, 현관 쪽으로 걸어간다.

서현 난 잠깐 나갔다 올게. 아무래도 좀 바쁠 것 같네-

거울 속 서현, 필사적으로 거울을 두드리며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
서현,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나가서 프레임 밖으로 사라진다.

SFX>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와 도어락 작동음.

거울 속에 갇힌 진짜 서현만 남는다.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던 서현.

이내 두드리던 손을 천천히 내린다.

CUT TO BLACK. - 끝.